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2월 18일(화) 제 3037호



도-시군 기업유치 전략회의 17일 도청에서 열린 '2025 도-시군 기업유치 전략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전북도>

도, 청년 잡아 '함께 성공'...종합 지원 확대

청년 정착이 곧 미래! ...'함성패키지'로 지방소멸 극복
전북, 청년 유출 막고 지역 정착 유도하는 종합 대책 추진
취업·정착·자산 형성까지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 강화

전북자치도가 청년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성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에서만 3만4천여명의 18~39세의 청년이 타 지역으로 떠났으며 이에 따라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시행해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함성패키지 사업'은 '함께 성공'의 줄임말로, 전북 청년의 귀직·정착·자산 형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미취업 청년 지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재직 청년 지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근로 청년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근로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8세에서 39세까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한다. 2년 만기 시 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금융 및 재무 컨설팅 교육도 함께 제공해 청년들의 자산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함성패키지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참여자의 93.1%가 추천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경우 재직 유지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5.1%에 달했다. 또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은 도내 거주 유지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0.4%, 만족도가 96.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지난 1월 모집 공고 후 현재 대상자 선정 단계에 있으며,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또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3월 초 모집 공고를 통해 신규 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도-시군 및 새만금청 협력 강화...맞춤형 기업유치 총력

도-시군 전략회의...타깃기업 발굴, 공동 투자유치 모색
출향기업 네트워크 활용, 유관기관 연계 맞춤 지원 확대
새만금청, 美 전기차 정책 변화 따른 실질 투자 유도

전북자치도는 1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도-시군 기업유치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기업유치 활성화 및 도-시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인태 도 기업유치실장 주재로 14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5년 기업유치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기업유치 활성화 전략 및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도와 14개 시군은 각 시군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군이 협력해 타깃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동향을 분석하

며 산업별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 방문 및 투자유치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별 최신 트렌드와 시장동향을 반영하고 주요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를 위해 시군별·산업분야별 세미나를 공동 주관하여 개최하기로 했다.

도는 전북 출신 기업인(대표·임원급 이상)을 도-시군이 협력해 적극 발굴하고 이들과 연계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과의 접점이 많은 유관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별 유관기관 간담회 및 방문을 확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최준호 기자

전북, 농촌돌봄사업 선도 올해 4개소 추가 선정

5년 연속 전국 최다 운영...15억2천6백만원 지원 예정
농촌돌봄농장 등 총 26개소...전국 대표 사례로 우뚝

전북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5년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전국 총 25개소 중 4개소가 신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도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전국 최다, 총 26개 농촌돌봄농장을 운영하는 광역자치도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26개소에 투입되는 총예산 규모는 66억4천,900만원에 이르게 됐다.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와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함께 행복한 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다.

신규 선정된 '농촌돌봄농장'은 ▲익산시 농업회사법인 디지털(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완주군 농업회사법인 그라스팜(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부안군 농업회사법인 화동(장애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이며,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남원시 남원지역활력혁신센터(지역 어르신 등)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매년 평가를 거쳐 개소당 5년간 2억5천만 원에서 최대 4억5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운영비·시설비·지역 네트워크 구축비 등에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농촌복지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형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 기자

도, 3월부터 '주4일 출근제' 시행... '저출생 극복'

전북자치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4일 출근제'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이다.

유형은 휴무형, 재택형(I·II) 등 크게 2가지다.

휴무형은 4일간 하루에 육아시간(2시간)을 제외한 8시간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는 형태다. 육아시간은 출근을 2시간 늦게 하거나 퇴근을 2시간 일찍 하는 등 자유롭게 쓰면 된다.

재택형 I은 4일간 하루 8시간 중 육아시간을 제외한 6시간만 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는 형태다. 하루 2시간씩, 3년간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을 다 소진했다면 재택형 II(4일간 하루 8시간 근무·하루는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다.

도는 주4일 출근제 시행계획을 이달에 확정, 각 부서에서 통보할 예정이다. /정혜민 기자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전북타임스 http://www.jeonbuktimes.co.kr



도의회 교육위, 13개 직속기관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이병철 의원, “특목고 학생들 의대 등 특정전공 분야 쏠림 현상 심각…교육청이 제대로 지도해야”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식)는 지난 13일 도교육청 교육국, 14일 교육청 소속 13개 직속기관의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의원들의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정희 의원(군산3)=특수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특수학급 설치에 반대하는 학교와 학교장들이 여전히 많다. 각각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교육청의 특수교육과 관련한 예산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특수학급 설치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학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권 신장과 관련, 접수된 사안들만 처리하는데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사, 관리해야 한다.

▲이병철 의원(전주7)=전북을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 양성인데 그 역할을 교육청이 제대로 해야 한다.



박정희 도의원



이병철 도의원



윤영숙 도의원



강동화 도의원



윤정훈 도의원

과학교나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그 분야의 전공을 하지 않고 의대 등 분야에 쏠리는 현상이 심각하다. 교육청이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도, 교육해야 한다.

▲윤영숙 의원(익산3)=1:1 학습지원 대면(비대면) 튜터 운영, AI 기반 코스웨어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책임교육학년(초등 3학년) 지원 등 사업들의 예산 내역과 구체적인 계획들을 밝히고 이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학교급식 납품 계약 관내 지역업체 이용률을 더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화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노력해야 한다.

▲강동화 의원(전주8)=전주학생교육문화관 안전체험관 등 문화관 시설들의 주말 개방 등 이용시간 확대와 주차 공간 및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에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작년 10월 미래교육연구원 AI·SW 체험센터를 개관했는데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잘 운영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병철 의원(전주7)=6개 학생교육문화관들 끼리 학력에만 올인하지 말고

학생들이 숨을 돌리고 휴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윤정훈 의원(무주)=학생교육문화관 평생교육 분야의 수강료 등 유료화 전환과 관련, 그 이유와 기대효과가 무엇인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도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은 사전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내실화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윤영숙 의원(익산3)=직속기관 시설 관리직과 일반직 등의 정·현원 현황을 밝히고 인력 운용에 따른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 살펴 주기 바란다. /김관 기자

2036 올림픽 전북 유치, 세계 재외동포 적극지지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향한 염원이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호주 등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들이 ‘전북 올림픽 유치 응원 릴레이’에 적극 지지하며 자발적으로 응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도는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 ‘혁신적인 올림픽 모델’과 ‘K-문화 세계화’라는 비전을 앞세워 올림픽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세계 곳곳의 한인 사회도 전북의 올림픽 유치를 적극 지지하며, 자발적으로 응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한인회와 호남향우회, 도민회 등 재외동포 단체들은 SNS를 통해 ‘K-문화 수도 전북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의 강점과 유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해외 한인 단체들은 전북이 가진 잠재력을 강조하며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 캠페인뿐 아니라, 현지 교민 행사와 문화제에서 전북 올림픽 유치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호주 등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들이 ‘전북 올림픽 유치 응원 릴레이’에 적극 지지하며 자발적으로 응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있다.

도는 이러한 재외동포들의 응원이 전북 올림픽 유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K-콘텐츠와 친환경·스마트 올림픽이라는 전북의 차별화된 유치 전략이 국제적 공감대를 얻으며, 유치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2036년 하계올림픽을 전북에서 개최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스포츠·문화 산업 발전에도 긍정

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외동포들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전북을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시킬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전북 올림픽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다”며 “도민과 해외 동포들의 연원을 모아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김관영 도지사, “민생경제 회복 속도감 있는 대응” 주문

김관영 도지사는 “지속되는 민생 한파 속에서 속도감 있는 대응으로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 넣자”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17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전국적인 경제 불황 속에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가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며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돈이 도는 것 자체가 민생 회복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생 중심의 홍보를 지시했다.

또한, “조류AI 발생 농가와 인접 지역에 대해 신속한 초동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가금농장과 취약지역 및 철새 도래지 등에 대한 소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며, “특히, 몇 개월간 선제적 대응에 애쓴 공무원들의 노가가 컸다”며 격려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재 발굴 중인 메가비전 프로젝트에도 미래 산업을 견인할 대규모 사업과 에너지·바이오·방산 등 글로벌 선도 산업을 과감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리를 정교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도의회 문안소위, 문학예술인회관 건립 현장 방문

전북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17일 문학예술인회관 건립 현장을 방문,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문학예술인회관 건립 사업은 1979년 도지사 관사로 시작된 전북문화관이 시설의 노후화와 좁은 전시 공간으로 활용도가 점차 감소, 2020년부터 신축계

획이 추진됐다. 문학예술인회관은 다양한 문화행사와 전시를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문화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

는 문화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정규 위원장은 “문학예술인회관이 지역의 문화적 인프라 측면에서 문학예술인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

전북 생태관광지·천리길 사진 전시회 개최

‘전북 생태관광의四季’, 21일까지 도청 로비서 진행

전북자치도는 도내 생태관광지와 천북 천리길을 널리 알리고 탐방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북 생태관광의 사계(四季)’라는 주제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17일부터 21일까지 도청 로비에서 5일간 진행되며 전북의 아름다운 생태관광지와 천리길 명소를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진행된 ‘전북 생태관광·천리길 사진&영상 공모전’의 수상작 29점을 포함해 전북의 대표 생태관광지와 천리길 명소를 계절별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특히, 전시 작품들은 생태관광지의 생동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장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태관광 활동가들이 도슨트(전시 안내인) 역할을 수행하며, 작품 설명과 함께 생태관광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업국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북의 생태관광지와 천리길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도민과 방문객들이 전시를 통해 전북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김명지 도의원, ‘도평생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이 지난 14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평생교육이용

권 지원사업의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방법 및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의 사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됨에 따라 평생교육과 관련된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 이후 평생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 기자

완주군 공고 제2025-296호

도로·접도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금구~이서 지방도 확포장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8.

완 주 군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5년 ~ 2030년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시정	중정		
금구~이서 지방도 확포장공사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41-2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298-4	○ 연장 : 3.50km ○ 폭원 : 17.25~18.0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2. 열람장소, 열람기간

구 분	열람장소	열람기간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공항공청도과	2025.02.18. ~ 03.04.(14일간)
김제시	건설과,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완주군	도로교통과,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5.02.18. ~ 2025.03.04.(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공항공청도과(203-294-0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30지구 3천억 규모 배수개선사업 확정

농어촌公 전북본부, 3,107억 원 규모 배수개선사업 본격 추진…전국 최대 규모 30지구 선정

상습 침수지역 개선…배수장·배수로 확충으로 농경지 보호 및 농가소득 증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인)는 전국 최대 규모인 30지구 사업비 3,107억 원의 배수개선사업이 신규착수 및 기본조사 대상지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확정됐음을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 정책에 부응해 재배작물 현황조사 및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달성된 성과이다.

배수개선 사업은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50ha 이상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의 주요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다.

신규 착수 지구는 완주 남정 등 14지구(1,373억, 1,877ha)가 선정돼 금년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된 익산 할라 등 16지구(1,734억, 1,915ha)는 사업 타당성 분



한농공 전북지부는 도내 30지구 사업비 3,107억 원의 배수개선사업이 신규착수 및 기본조사 대상지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확정되었음을 밝혔다.

석, 주민의견수렴 등 기본조사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해 내년도 신규 착수 지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본조사 대상지 중 논농지구 배수개선사업은 9지구(687억, 1,098ha)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지역에서 대

규모로 선정돼 지역 특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금년도 사업비 889억 원을 확보해 43개지구 [계속(39), 준공(4)], 6,128ha에 배수개선사업을 추진중이다.

전북지역본부의 배수개선사업 예산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21년 643억, '22년 706억, '23년 598억, '24년 815억), 금년에 확보한 배수개선사업의 예산 889억원은 작년에 확보한 815억원 대비 11% 증가됐다.

추진 중인 43개 지구의 주요 사업 내용은 홍수시 신속한 배수처리를 위해 배수장 18개소와 배수문 91개소, 배수로 380km(704조)를 신설·확장하는 계획이다.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을 신설·확장함으로써 상습침수지역의 침수피해 방지와 농가소득 증대 등의 사업효과가 기대된다.

김동인 본부장은 “최근 정부의 타작물 재배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논콩, 가루쌀 등의 농작물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배수개선사업의 확대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

첫 전국동시선거…19~21일 사이 선거인 명부 열람 가능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관할 구·시·군선거위원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에서는 도내 51개 새마을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하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금고의 회원으로서 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 시에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탁금은 7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에서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등록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19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0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3일 확정된다. 후보자 등 주요 선거정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https://we-info.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관 기자

LX공사, 토지형상 바로 잡는 ‘지적재조사’ 본격 착수

전국 156개 지자체·381개 사업지구 대상…민간업체 참여비율 확대로 사업 효율성 강화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년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16.6만 필지)이며, 사업비는 41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LX공사의 업무공정을 조정으로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을 확대(40→47%)됐으며, 소규모 사업지구(200필지 미만) 또는 도서·재난·위험지역 등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연내 사업완료를 필요로 하는 중점관리지구는 책임수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해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개선됐다.

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6.6%)가 선정



LX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돼 12.8억원(상위 10개 업체 평균 4.8억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민간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

은 15일간(1.14~1.31) 진행해 132개 업체가 참여해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93.6%)가 선정됐으며 평균점수는 94.6점으로 나타났다.

/최준호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신보와 1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나서

저신용 자영업자 특별대출·소상공인 회생자금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속적 금융지원 약속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약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올해 1월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특

별대출을 시작으로 2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회생보듬자금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저금리의 지자체협약대출, 소상공인 정책대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다소나마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고, 금리부담 경감 등 저금리 신규대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성훈 본부장은 “우리 농협은행의 핵심가치는 고객과의 동반성장으로 앞으로도 금융지원을 꾸준히 이어감으로써 도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도,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 새만금청, 입주기업 노무 자문 지원

지원기준 대폭 완화…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까지

전북자치도가 저소득층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 가입 기준이 0~17세 아동을 대상으로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됨에 따라, 신규 가입 대상이 약 7천900명 증가해 총 2만1천681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 진출 시 초기 정착 비용(학업, 취업훈련비, 주거 마련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 형성 사업이다.

아동 본인(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17

세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저축금액의 2배를 매칭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자체에서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총 15만원이 쌓이는 방식이다.

적립된 금액은 18세 이후 학자금이나 취업훈련비용,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24세 이후에는 사용 용도에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하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새만금청)은 17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국가산업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노무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새만금 국가산업단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노무 자문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연락망 구축과 행정적 지원을 전담해 자문이 필요한 기업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연결할 것이며,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무사를 추천·배정해 실제 자문을 진행하며, 전문 컨설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새만금청과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노무·회계 등 전문 자문 수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중 시급하다고 요청한 노무분야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은 투자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입주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노무 관리와 인력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입주기업들의 기업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 새만금 입주기업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영역을 노무 외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결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최준호 기자

백종일 전북은행장 ‘저출생극복 금융권 챌린지’ 동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백종일 은행장이 저출생 위기 극복과 가족친화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한 ‘저출생 위기 극복 금융권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일과 가정의 양립제도 정착과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대표적 인구소멸 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의 인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최준호 기자

전북농협, 전북대 학생 대상 아침밥 먹기 운동 실시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14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함께 전북대학교 입학식을 맞이해 학생들의 균형된 식습관 형성 및 전북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실시했

/최준호 기자

무주군,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북농협 이정환 총괄본부장과 전북대학교 박영기 교학부총장 등 양 기관 임직원 및 재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1kg 소포장 쌀 3,200개(1천만원 상당)를 나눠주며 아침밥의 효능(정서적 안정과 학습능력 향상, 비만 예방과 면역력 강화 등) 및 중요성,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총력 전개했다.

/최준호 기자

(회장 이선홍)는 무주군(군수 황인홍)이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도 적십자사 활동을 위해 군민분들의 나눔 참여가 절실하다”며, “무주군도 지역 이웃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도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 평가 실시

평가 결과 익산·진안 최우수교육청 선정·공문서 감축 평가지표 모든 교육청 통과 못해… 올해 과제로 남았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지원청의 정책사업 추진 성과 향상 및 기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2024년 시·군 교육지원청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력신장 ▲수업혁신 ▲기초학력 책임제 ▲디지털 수업역량 제고 등 9개 영역 18개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와 ▲지역특색사업 또는 학교지원 우수 사례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했으며 교육여건 차이를 고려해 시지역(6)과 군지역(8)으로 구분해 운영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교육지원청은 익산·진안 ▲우수교육지원청은 군산·김제·고창·순창이 각각 선정됐고, 이들 교육청에는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시상식은 지난 17일 오후 3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은 수업공개 나눔 활성화, 학력신장 지원 강화, 두드림학교 운영 지원, 난독·경계선 학생 교육 지원, 교원 에듀테크 역량 강화 등의 주요 평가지표를 모두 높은 점수로 통과했다.

그러나 학교업무 경감을 목표로 하는

공문서 감축 평가지표는 아쉽게도 모든 교육지원청이 통과하지 못해 2025년 해결해야 할 행정 혁신 과제로 남았다.

우수사례로는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결손의 적기 해소 내용에 관한 ▲「익산 학력신장 JUMP-UP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과 지역특화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의 내용을 담은 ▲「미래를 선도하는 고창 스마트스쿨&미래교실 체험 대축제-에듀테크가 ON-多」가 꼽혔다.

올해 처음 실시한 평가임에도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

으며, 근소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북교육청의 10대 핵심과제 및 주요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에서 안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이다. 다만 교육지원청의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각 교육지원청들 간의 경쟁보다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평가를 통해 국가시책 사업을 포함한 교육정책 추진 성과를 향상시키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여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양오봉 총장, 대학 혁신 이끌 제2기 집행부 임명

“전북대학교 미래 이끌어 갈 책임자… 각 분야에서 전문성·리더십 통해 대학의 비전과 목표 실현하는 데 큰 역할”

전북대학교 제19대 양오봉 총장과 함께 대학발전을 이끌 제2기 부총장 및 처장급 집행부가 꾸려졌다.

전북대는 최근 2기 집행부를 구성, 교수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처장급 등 보직자를 확정하고 지난 17일 오전 10시 JBNU 인터내셔널센터 동행홀에서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명식에서 양 총장은 2기 보직 교수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전북대 혁신을 함께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직교수를 대표해 이동현 교학부총장이 청렴한 공직문화 실현 의지를 다짐하는 청렴선서와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임명식에서는 교학부총장에 이동현 교수(화학과), 연구부총장에 이준화 교수(수학과), 대외·취업부총장에 윤명숙 교수(사회복지학과)가 각각 임명됐다. 대학원장에는 김성민 교수(생

물산업기계공학과)가 임명됐다.

또한 처장급에서는 교무처장에 오상욱 교수(생물교육), 학생처장에 조동휴 교수(의학과), 기획처장에 국경수 교수(전기공학과), 대학원혁신·연구처장에 김희선 교수(간호학과), 입학처장에 안정용 교수(통계학과), 국제처장에 조화림 교수(프랑스아프리카학과), 교육혁신처장에 심재우 교수(영어교육과), 정보혁신처장에 김순태 교수(소프트웨어공학과), 사무국장에 강정석 교수(심리학과), 산학협력단에 손정민 교수(자연에너지공과)가 각각 임명됐다.

또한 부처장급에는 교무학사부처장에 김태환 교수(양자시스템공학과), 학생지원부처장에 유창호 교수(IT융합기전공학), 기획조정부처장에 정창규 교수(전자재료공학), 재정기획부처장이 노산하 교수(경제학부), 대학원혁신·연구



전북대는 지난 17일 제2기 부총장 및 처장급 등 보직자 임명식을 개최했다

처 대학원혁신부처장에 김정곤 교수(화학과), 대학원혁신·연구처 연구진흥부처장이 이승범 교수(국제이공학부), 입학부처장에 김진규 교수(의학과), 언어교육부처장이 김정수 교수(중어중문학과) 등이 임명됐다.

양오봉 총장은 “새롭게 모신 보직 교

수님들은 전북대학교를 미래로 이끌어 갈 책임자들로,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통해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현실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북대가 학생 중심, 지역 상생, 글로벌 허브 대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소규모 유치원 유아 교육여건 개선 적극 지원

한울타리유치원 사업·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이달 중 공모 5개팀·15개원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한울타리유치원 사업’과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유아 학습권 보호에 힘을 쏟는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한울타리유치원 사업은 중심 유치원 1곳과 협력 유치원 2~3곳이 체험학습, 교육활동, 행사 등을 공동 운영하는 것이다.

공모를 통해 2개팀, 6개원을 선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된 예산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내·외부 환경 조성 및 리모델링, 시설비, 운영비, 인

건비로 활용된다.

또한 컨설팅, 모니터링, 수업 사례 나눔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은 작은 유치원 간의 협력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놀이 활동, 특색있는 행사 등을 통해 유아의 놀권리를 보호하고, 교사 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과정 내실화를 꾀한다.

공모를 통해 총 5개팀, 15개원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사노조위원장,국가교육위전문위원위촉

정재석 위원장 “의견 수렴하여 합리적인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전북 교사노조 조합 정재석 위원장(사진)이 국가교육위원회의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내달부터 2년 동안 이 위원회의 교육 정책 사전 검토, 절차 설계, 공론화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는 공론화 절차 기획 등에 관한 의견 수렴과 교육 발전 정책 논의 등을 맡는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이라는 무게감 있는 자리에 위촉된 점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으로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교사노조 제1대~제4대 위원장 ▲교사노동조합연맹 부대변인 및 정책연구국장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전라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교육을 가로막는 벽’ 공저 ▲‘극한직업’ 선생님을 부탁해’ 공저 ▲이외 교육 정책 칼럼 다화 기고 등 다양한 교육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졸업생들, 태양광 스마트그늘막 제작 기부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미네르바학부 기술경영공학과 2021학번 재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태양광 스마트그늘막’을 제작하여 캠퍼스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시작으로 공학설계 및 제작을 거쳐 설치까지 진행한 결과물로, 기술과 실용성이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한다.

해당 태양광 스마트그늘막은 태양광 패널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아 자동으로 펼쳐지고 접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조도량과 풍량을 감지하여 환경에 따라 자동 제어가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가 휴대폰 및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실용성을 극대화했다. 뿐만 아니라, 수동 제어 옵션도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



가 돋보인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미네르바학부 기술경영공학과 학생들은 “우리가 배운 기술을 활용해 캠퍼스에 의미 있는 선물을 남길 수 있어 뿌듯하다. 태양광 스마트그늘막이 학생들의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물품전시회 참여 업체 공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 교육물품전시회’에 참여할 업체를 공모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지역업체-교육기관 간 판로 확대 및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연 1회 교육물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도 오는 4월 18일 교육물품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는 교육기관의 수요가 많은 시설

자재, 교육물품 등을 생산하는 도내 업체 80여 개를 모집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도교육청 누리집 메인화면의 알림 배너를 클릭해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이메일(jbeco@jbedu.kr), 팩스(220-9426), 우편(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4층 재무과)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성민 기자

'지속가능한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질서 지키기

01

정지선 지키기

02

방향지시등 켜기

03

신호위반 안하기

나 부터 실천합시다!



정읍·고창 농축협, 8000만 원 상호 기부

지역 간 상생을 위한 따뜻한 기부가 이어졌다. 정읍시와 고창군의 농축협 조합장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4000만 원씩 기부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동행을 약속했다.

정읍시와 고창군 농축협 조합장들은 17일 정읍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지부장 김순기)와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를 비롯해 정읍과 고창의 11개 농축협 조합장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에 참여한 곳은 정읍의 샘골, 신대인, 정읍, 칠보, 태인, 황토현, 원에 농협과 순정 축협 등 8개 농축협과 고창의 선운산, 해리, 대성, 흥덕 농협 및 고창·부안 축협 6개 기관이다. 이들은 각 지역의 임직원 400명씩 참여해 각 지자체에 4000만원씩 기부했다.

시 조합운영협의회 회장이자 샘골농협의 허수중 조합장은 “올해도 정읍과 고창이 함께 기부를 실천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양 지역이 상생 협력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발급 신청

익산시가 저소득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한다. 익산시는 취약계층이 농산물을 지정된 매장에서 구입하는 이용권인 농식품 바우처 발급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신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구다.

시는 내달 31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를 진행해 신청자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화(1551-0857)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매월 10만 원으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바우처 카드는 4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고, 미지급된 3월분은 올해 12월 지급분에 포함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온라인 홍보포털 사이트 전면 개편

군산시가 시민들이 다양한 시정 소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홍보포털 사이트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모바일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성 강화로,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테마별, 분야별, 시기별, 지역별로 나눠 군산의 다양한 이야기를 사진을 만날 수 있게 했다.

기존 회원가입 시스템과 복잡한 원본 사진 요청 및 관리자 승인 단계도 삭제해 이제는 사용자가 원하는 즉시 고품질의 원본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특히 군산시 공식 소셜미디어 및 유튜브 채널과 연계해 더욱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Moments In Gunsan's History' 아카이브를 마련해 2000년대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변화한 군산의 모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장, 국가예산 확보 총력

정현을 시장 기재부 간부 면담… 전북도·정치권 공조 체계 구축·예산 확보 활동 전개

정현을 익산시장이 2026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현을 시장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예산실 간부 공무원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 시장은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정덕영 행정국 방예산심의관을 비롯한 관계자를 만나 익산시의 핵심 사업들이 올해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국회 감액 예산안 처리로 미반영된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동물물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형상 정밀모니터링 바이오프린팅기술 고도화(R&D) ▲석재산업 지원센터 설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정현을 시장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간부 공무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와 함께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복원사업 ▲전북진로융합교육원 설립 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시는 오는 3월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조감상 세종사무소장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이춘석·한병도 의원 등과 공조 체

계를 구축해 전방위적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국가예산 확보는 익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라며 “신규 사업 발굴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한우품질업그레이드…16억 예산투입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한우 품질개선·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등 사업 지원

정읍시가 한우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송아지부터 성숙(여른 소)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올해 16억 7400만원을 투입해 8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고품질 한우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 ▲한우 품질개선 지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 ▲한우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 ▲암소 유전형질 개량 ▲한우 진자확인검사 지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등 총 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송아지의 면역력을 높이고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 ‘송아지 폐사 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사업’에 3600만원을 배정했으며, 미네랄 블록과 사료첨가제 등 보조제를 지원하는 ‘한우 품질개선 지원사업’에는 4억원을 투입한다. 초유면역제 지원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순정축협·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전북한우협동조합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유전자 분석을 활용해 우량한 우를 집중 육성하고 저능력 개체는 조기 도태를 유도하는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과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사업’에는 8억 4000만원이 투입된다. 해

당 사업은 순정축협, 전국한우협회, 전북한우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혈통이 우수한 암소 등록 및 선형심사를 지원하는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2억 2200만원), 가축시장 내 거래되는 한우의 진자확인 검사를 지원하는 ‘한우 진자확인검사 사업’(2억 900만원)도 추진된다.

아울러, 한우 암소를 비육용으로도 활용해 농가의 수익을 높이고 자율적인 수급 조절이 가능하도록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에 6500만원을 투입한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가동 시작

외국인 주민 대상 다양한 체류 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 정착 기반 마련

군산시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오늘 문을 여는 센터는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착 지원과 지역 사회 일원으로서의 통합을 위한 다양한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외에도 ▲생활 정보 안내 및 상담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역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위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 오시도동 군산산업단지 북합문화센터(분별3길 23) 1층으로 정했다.

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의 근무시간, 생활여건 등을 반영하여 평일 뿐 아니라 주말도 포함하여 화요일

~금요일 09시~18시, 토요일 09~13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 일반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열린다. 외국인 주민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 등 기본적인 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체류자격 신청 시 점수 부여 또는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참가를 원하면 지난 1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063-454-263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증가한 외국인 주민들이 어느덧 군산시 총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안정



적인 생활 유지와 적응을 돕는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센터를 열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실질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와 외국인 주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끝맺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자활·자립근로사업 본격 추진… 36억 투입

취약계층 대상 다양한 일자리·개인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 제공·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정읍시가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맞춤형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25년 자활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총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활근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와 개인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자산형성지원

경제적 자립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23억원을 투입해 세탁, 세차, 카페, 영농사업 등 다양한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120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정읍지역자활센터의 12개 사업단과 5개 자활기업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자활급여 단가를 전년 대비 3.7% 인상해 최대 156만원까지 지급한다.

더불어,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

상위계층 청년 282명을 대상으로 ‘청년 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해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해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연간 최대 150만원의 ‘자활 성공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확대

이학수 시장 “어린이 건강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

정읍시가 어린이 건강 증진과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2025년 어린이집·유치원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60회였던 과일 공급 횟수를 올해 104회로 대폭 확대해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신선한 제철 과일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총 3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유치원·어린이집 80개소, 약 2300명의 어린이에게 신선한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공립·사립 유치원 34개소(800명), 어린이집 46개소(1500명)이며 어린이 1인당 120g

내외의 제철 과일이 제공된다.

과일 공급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친환경·GAP 인증 과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 전북산 일반 과일로 대체된다.

지원 품목은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자두, 딸기, 토마토 등 계절별로 다양한 제철 과일이 제공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은 어린이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간식을 제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의회·군산항발전협의회, 간담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와 군산항발전협의회가 지난 13일 군산시의회 의정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상생 발전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고병수 군산항발전협의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통합 운영 필요성과 함께 군산항 준설 문제의 시급성을 논의했다.

특히, 새만금신항의 성공적인 개항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과의 통합 운영, 즉원포트(One Port)체제 구축에 대한 의견이 일치했다.

새만금신항이 군산항과 별개로 운영될 경우, 불필요한 물동량 유치 경쟁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합 운영이 항만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는 데 동의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전북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선정

국도비 포함 예산 5억 3천만 확보… 조선업 근로자 장기근속 지원

군산시가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 ‘전북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도비 포함 예산 5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

‘전북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은 정부, 자치단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원청, 근로자 4자 직접 방식으로 각각 매월 8만원씩 동일한 금액을 적립 후 2년 만기시 800만원의 공제금과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 2년간 추진되며, 조선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지원을 통한 안정적 인력 운영 및 기술 숙련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15개 사내 협력사 재직근로자 414명이다.

지난해 11월에 진행했던 지원기업



제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214명 중 94%(201명)가 사업 종료 후에도 군산 조선소 사내 협력사에 계속 근로를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통한 인건비 지원 사업 외에 근로자 직접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율 증가에 따른 만족도가 91.7% 나타났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장기입원 실태조사 실시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다빈도 외래이용자 집중관리

익산시가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입원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지역 8개 요양병원의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45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장기입원 실태조사는 ▲입원 경위 ▲건강 상태 ▲사회적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조사 결과 불필요한 장기입원으로 판단되면, 재가 의료급여사업과 연계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다빈도 외래이용자 사례관리는 중복 진료와 약물 처방을 줄여 의료비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해 의료급여 재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의료 이용 행태를 분석해 과다·중복 이용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다빈도 외래이용자 사례관리는 중복 진료나 약물 처방을 줄여 의료비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해 의료 급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의료기관 이용 내역을 분석하고 가정 방문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군 민생안정금, 경제 효과 ‘뚜렷’

지급율 95% 이상, 154억 원 풀려…군민 50%가 생필품 구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기업 유치 성과로 재원 확보

완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2일부터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완주군의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률은 96%를 넘어섰다. 사용액은 총 178억 원(62%)에 달한다.

지원금 사용처는 로컬푸드, 마트 등 유통매장이 50%로 절반을 차지해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뒤를 이어 일반음식점 등 식생활 27%, 주유 등 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교육비, 병원비, 의료 등 필수 생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됐다.

삼례읍의 정양선 삼봉식자재마트 대표는 “탄핵정국과 물가상승 등으로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지급 첫날부터 매출이 올라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민생안정지원금에 나서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만족도가 크고, 시장의 반응이 즉시 나타난다는 점이다. 전북자치도에서 김제시가 50만 원, 완주군을 비롯해 정읍시, 남원시가 30만 원, 진안군은 20만 원을 지급했다.

완주군의 탄탄한 재정운용 능력도 설



완주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명절 전의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했다. 2024년 본예산 기준 완주군 재정자립도는 전북 2위로 전국 군 단위 자립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완주군은 최근 3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나라살림연구소가 실시한 ‘보통교부세 진단을 통한 완주군 재정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에서도 지방교부세 수요분부 자체노력도 비교군 지자체 중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꼽히기도 했다.

특히, 완주군은 민생안정 지원금 지

급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여유재원을 활용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완주군은 지난 5년간 기금을 조성해왔다.

군은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완성이 임박하면서 SPC 부채(2,332억 원)를 모두 상환하고 매입확약액의 450여억 원을 절감하며 이를 민생안정지원금 300억 원에 사용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춘향제,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개최

‘스피릿 춘향, 몽룡 파이터’…2개 부문 총 상금 670만원



따뜻한 날씨와 자연의 생동감이 느껴지는 봄, 우리나라 대표 전통 축제인 ‘춘향제’가 제95회를 맞이한다.

이번 축제는 춘향과 몽룡의 사랑과 정신을 춤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전국 청소년 춤꾼들이 남원시청 또는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댄스동영상’ 파일을 함께 이메일(namwon3363@naver.com)로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이번 대회는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3일)과 K-POP 커버 댄스 경연(4일) 2개 부문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각 경연은 온라인 영상 심사(예선)를 통해 12팀씩 본선으로 진출하게 되고, 본선에서 최종 3팀씩 수상하게 된다.

총 상금 670만원으로,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장작, 스트릿, 힙합 등), K-POP 커버 댄스 경연(K-POP 커버 춤)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또는 남원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스피릿 춘향, 몽룡 파이터’ 접수 /남원=정하복 기자

기간은 오는 4월 18일까지이며, 전국 만9~24세 청소년 댄스팀(3인 이상)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남원시청 또는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댄스동영상’ 파일을 함께 이메일(namwon3363@naver.com)로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이번 대회는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3일)과 K-POP 커버 댄스 경연(4일) 2개 부문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각 경연은 온라인 영상 심사(예선)를 통해 12팀씩 본선으로 진출하게 되고, 본선에서 최종 3팀씩 수상하게 된다.

총 상금 670만원으로,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장작, 스트릿, 힙합 등), K-POP 커버 댄스 경연(K-POP 커버 춤)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또는 남원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스피릿 춘향, 몽룡 파이터’ 접수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청년창업 지원…지역 정착·상권 활성화 도모

18세 이상 49세 이하 군민 최대 2천만 원 지원…이달 25일까지 신청 접수

순창군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예비창업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초기 창업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5명으

로,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나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자, 국제·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와 장비구축 비용으로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단, 주유도매업,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이달 17일부터

25일까지 순창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류를 확인한 후 작성해 순창청년문화센터(순창읍 교성2길 25) 내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650-1562, 1587)에 문의 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는 창업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지며, 선정된 청년들은 올해 상반기 내 창업을 진행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의회, 삼례·봉동읍 배수로 민원 현장 점검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지난 14일 삼례읍 신금리와 봉동읍 구암리의 배수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실시 됐으며, 현장 점검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해 마을 주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유의식 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가 잦아진 만큼, 취약 구간에 대한 배수로 개선, 소하천 정비 등 철저한 배수 대책 수립 및 시공이 필요하다”며,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관계자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특히, 이번 방문지역은 장마철마다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와 함께 진행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배수로로는 좁고 오래된 구조로 퇴적물과 토사 등이 쌓여 배수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었다.

유의식 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가 잦아진 만큼, 취약 구간에 대한 배수로 개선, 소하천 정비 등 철저한 배수 대책 수립 및 시공이 필요하다”며,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관계자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유의식 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가 잦아진 만큼, 취약 구간에 대한 배수로 개선, 소하천 정비 등 철저한 배수 대책 수립 및 시공이 필요하다”며,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관계자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유의식 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가 잦아진 만큼, 취약 구간에 대한 배수로 개선, 소하천 정비 등 철저한 배수 대책 수립 및 시공이 필요하다”며,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관계자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 분양 신청 접수 시작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 분양을 원하는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어가는 농업기술센터 내수면산업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분양하는 치어는 농업기술센터 미꾸리 연구센터에서 자체 생산한 것으로, 60일 이상 키운 개체 중 0.3g 이상의 건강한 치어를 선별해 공급할 예정이다. 치어 공급가격은 마리당 5원이며, 남원시 관내에서 미꾸리를 양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가에 한 해 분양이 이뤄진다.

과거 국내 미꾸리 양식 치어는 대

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으며, 이에 따라 건강한 국산 미꾸리 치어에 대한 양식 어가의 요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에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2008년부터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 생산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대량생산에 성공해 지역 내 미꾸리 양식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양하는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는 수입산에 잠식된 국내 미꾸리 생산 기반을 회복하고, 토종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국산 미꾸리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시민 ‘자전거보험’ 자동가입…최대 3천만원 보장

지난해 75명의 시민이 자전거 보험을 통해 위로금 및 임원금 등의 혜택을 받은 남원시가 대한민국 대표 자전거 도시 조성을 목표로 올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하고, 이를 시행한다.

남원시는 앞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전 시민대상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

하해 친환경 도시를 조성해왔다.

이에 따라 남원시 자전거 보험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만15세미만자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상해위로금 20~60만원 ▲6월이상 입원 시 20만원 ▲사고 발생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

금 최대 3,000만원이다.

개인 보험과 중복으로 청구 가능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청구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자전거보험 혜택을 시 소식지,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확충, 정비 등 친환경 녹색 기반시설도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전거 보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 교통과(620-6985)나 DB 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지역 내 전통기술 잇는 ‘명인·명장’ 발굴 나서

순창군이 전통문화와 숙련된 기술을 보존·계승하기 위해 ‘2025년 순창군 명인·명장’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선발은 지역 내 우수한 기술과 예술적 재능을 가진 인물을 발굴하고, 그들의 기량과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다.

모집은 두 개 부문으로 나뉜다. ‘명인’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 순창군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의미하며, ‘명장’은 숙련된 공예 기술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 계승에 기여한 인물을 선발한다. 선발 인원은 부문별로 1명씩이다.

지원자는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며 기예가 뛰어난 자로, 순창군 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신청



이 가능하다. 또한, 주민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상급 기관(국가·도 지정 무형문화재 등)에서 이미 지정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

접수는 오는 3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명인·명장으로 선정되면 해당 분야의 전통과 기술을 계승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어르신 의치 지원 대상자 모집…예산 소진시까지

완주군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구강 기능회복을 돕기 위한 의치(틀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의치 지원사업은 영구치 손실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 의치 보철물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치를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다. 완주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건소를 통해 의치, 보철 시술비를 지원받았거나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7년 이내에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완주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063-290-3025)로 사전 문의 후 방문해 구강검진 및 상담을 진행, 신청서를 작성한 후 협약된 치과의원을 방문해 틀니 시술을 받으면 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관내 5~6세 유아 대상 유아발레교실 운영

순창군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순창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5~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발레교실을 해피니스센터에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유아발레교실은 농촌지역에서 전문강사 부재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웠던 발레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됐으며, 타 지역 전문강사를 초빙해 관내 유아들에게도 양질의 발레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실제로, 유아발레는 성장기 아이들의 자세 교정은 물론 근력, 유연성, 체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창의력과 사회성 발달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전문 발레강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 아이들이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유아발레교실은 총 64회에 걸쳐 오는 3월 17일부터 7월 11일까지 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네이버 카페 ‘순창군해피니스센터’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650-5233으로 연락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사랑의 헌혈’ 참여자 남원사랑상품권 1만원 지급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2025년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광장, 농업기술센터(오전), 보건소(오후)에서 실시한다.

헌혈은 전북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긴급히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목표로 진행된다.

헌혈은 만 16세부터 69세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헌혈을 위해 전날 음주는 삼가는 것이 좋다.

헌혈은 수혈 환자, 백혈병 및 혈액 질환 환자 등 수혈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에게 생명을 이어주는 중요한 활동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한파·독감에 따른 헌혈 참여율이 감소해 혈액 부족 문제가 심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헌혈자에게는 헌혈증서와 함께 기념품과 간식이 제공되며, 헌혈 1회 시 봉사시간 4시간 및 기관 내규에 따라 상시학습 시간이 인정된다.

또한, 남원시에서 올해부터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모든 헌혈 참여자에게 ‘남원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노인맞춤돌봄·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선 모색

완주군이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2025년 노인맞춤돌봄·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실효성평가’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담당부서인 완주군청 인구가족과를 비롯해 수행기관 시설장, 전담사회복지사, 선임생활지원사, 응급관리요원 등 총 32명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침 개정 사항’을 중점 논의해 ▲직역연급수급자 예외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 삭제 ▲중점돌봄군 40시간 이상인 경우만 심의 요청

대상에 포함 ▲사업 연도 내 경력 4년 이상 종속직 종사자의 기본급 재산정 가능 ▲대상자 관련 사고 등 목격에 따른 유급휴가 명시(신설)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서비스 이용 제한(신설) 등의 내용이 개정됐다.

이외에도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 결과 생활지원사와 응급관리요원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장수군, 고위험군 어르신 대상 치매인지선별검사 실시

장수군 치매안심센터는 장계노인복지관과 협력해 지난 14일 장계노인복지관 2층 으뜸마당에서 치매 고위험군(인지저하자 및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인지선별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계노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치매 및 우울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인지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치매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저자로 나온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전문의 진찰과 신경심리검사, 진단의학검사 및 뇌영상촬영 등을 협약병원(전주대자이병원)에서 실시하고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점승 보건사업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인지선별검사는 60세 이상 장수군민이라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지소, 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장수군 치매안심센터(063-350-2670)로 연락하면 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추진…총 128대 구매 지원

임실군이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보급 물량은 전기자동차 총 128대로, 승용차 65대, 화물차 63대에 대해서 구매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별·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며, 전기승용차의 경우 1대당 최대 1,210만원이고 전기화물차는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90일) 이전부터 연속해 임실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동일 기간 임실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법인, 기업 등이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접수는 2월 17일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지원 대상자 자격 부여 후 2개월 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통해 구매지원 신청서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한국생활개선장수군연합회장이·취임식 개최

장수군은 지난 14일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국생활개선장수군연합회 제15·16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군수, 최한주 군의회 의장, 이행단 한국생활개선전북자치도연합회 회장, 장수군 농업 관련 단체 임원과 생활개선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회장직을 맡은 이화립 이임회장은 30년간 생활개선훈화 활동을 해오며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새롭게 취임한 제16대 김윤희 회장은 “농작업 환경개선과 지역나눔의 실천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역량강화에 앞장서겠다”며 “장수군 생활개선훈화가 최고의 농촌여성단체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 생활개선훈화는 농촌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공공임대주택 320호 건립 추진

신혼부부 및 군무원 등 주거 안정 기대…임실읍·관촌면·오수면에 공급

임실군이 젊은 신혼부부와 청년(예비신혼부부),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군은 임실읍과 관촌면·오수면에 청년과 젊은 신혼부부, 군무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320호 건립에 본격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젊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1년 내 결혼을 앞둔 청년)를 대상으로 관촌면에 120세대(전용 59㎡ 60세대, 전용 84㎡ 60세대), 오수면에 80세대(전용 59㎡)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관촌·오수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젊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에게 주변시설보다 저렴하게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촌·오수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관련 부서 협의 중이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오는 5월 착공해 2027년 준공 예정이다.

또한 임실읍에는 120세대(전용 59㎡)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은 육군 35사단과 제6탄약창 등 주로 군무원을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임실 지역에 군무하는 250여명 달하는 군무원들은 마땅한 주거지가 없어 전주 등에서 출·퇴근을 하는 실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반팔주택을 제공해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군은 지난해 6월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 협의 면제를 받

았다.

현재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한 상태로 더 특별한 전북형 반팔주택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선정 시 도비 8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북형 반팔주택’공모에 선정되면 입주자들에게 월 임대료 50% 할인과 입주 후 자녀 출생 시 임대료 전액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된다.

심민 군수는 “임실군에 320세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젊은 신혼부부들과 군무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며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활력이 넘치고 살고 싶은 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역점사업 예산확보 분주

진안고원 복합문화 광장 조성·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 반영 등 요청

진안군은 지난 17일 행안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전춘성 군수는 주요 사업 소관 부서장들과 함께 행안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과 행안부 강성희 재난경감과장 등을 만나 각각 ▲군도11호선 도로 확·포장 ▲진안고원 복합문화 광장 조성을 위한 특고세 40억 지원과 ▲양명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월평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어서 환경부를 방문해, ‘용담호 내 하천관리지구 변경’을 건의했다.

진안군은 용담호 하천공간의 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 변경해 토지 효용성을 제고하고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원동력을 확보해 ‘용담호 예코가든 조성사업’, ‘용담호 예코 감성 탐방로



왼쪽부터 송형진 진안군 건설교통과장, 전춘성 진안군수, 강성희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장, 김경찬 수석전문관

조성사업’등을 조속히 추진할 전략이라고 밝혔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역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하

루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청…28일까지

근골격계·심혈관계 등 5개 영역 10개 항목 검진…총 180명에 검진비용 90% 지원

장수군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검진 대상자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1955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51세~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경영주, 공동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 종사자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한다.

또한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이 포함돼 있다.

모집 인원은 총 180명이며 모집인원을 충족할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검진비용은 검진단가 22만원 중 90%가 지원돼 2만원 내외만 자부담하면 된다.

최훈식 군수는 “특수건강검진 사전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번 사업이 여성농업인들의 농작업 질환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농업경영체 확인서



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농업인 역량강화 ‘반딧불농업대학’ 개강

무주군은 지난 17일 제17기 반딧불농업대학이 개강했다고 밝혔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날 개강식에는 수강생을 비롯한 내빈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농업대학 운영 과정 등도 공유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는 사과과(심화)와 농업마케팅과(실무), 수박과(실무)가 개설됐으며 115명이 수강 등록을 마쳤다.

수강생들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과 농기계 관련, 농업인 안전 등의 공통 과정을 기반으로 사과과에서는 매주 화요일 4시간씩 ▲사과원 토양관리부터 수형 관리 ▲수출 현황 및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농업마케팅과에서는 ▲포장 디자인과 캘리그래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등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수박과는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며 수강생들은 ▲수박 재배 이론을 비롯해

▲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한 비료 관리와 ▲병해충 예방 및 방제 등을 받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반딧불농업대학은 특화작목 육성과 농업인 역량 강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농업인들의 요구와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과정을 개설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군, 인·홍삼 산업 해외 시장 개척 ‘집중’

삼푸앰플 등 개발, 이탈리아국제학회서 발표 예정

진안군은 국내 유일 홍삼 특구로 서인·홍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 시장 개척 마련을 위한 여정에 나섰다.

작년 10월 진안군은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실베스트리니 베네딕도 수도원과 로마 교황청 바티칸을 방문해 진안홍삼 공동 상품 연구개발과 홍삼 제품 입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최근 실베스트리니 수도원에서는 진안 인·홍삼을 활용한 탈모 방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삼푸, 헤어로션, 건강음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는 앰플, 스킨, 크림 등을 개발해 오는 2025년 5월 이탈리아 국제학회에서 ‘의학에서의 한국산 홍삼’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홍삼의 우수성이 인정돼 진안군 생산업체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외 시장 개척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지난 12일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로부터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조직 기구인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전국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농업 관련 정부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도 발굴하는 활동을 한다.

약 200만 명의 농어민을 대변하는 만큼 당에서는 중요한 기구이다. 이런 농어민위원회에서 동(董) 부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부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했으며, 지역 농업을 넘어 전국의 농업 분야 활동을 인정받아 이번에 다시 그 역할을 맡는 임명장을 받은 것이다.

전국을 다니며 농민들에게 강의하는 등 농업 분야 공직 생활을 했던 동(董) 부위원장은 앞으로 전개될 정치무대에서 농업 전문가답게 다양한 활동으로 보답할 것이라 기대가 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안석환 배우와 함께 하는 ‘우리 무주’ 연극 펼쳐

무주군은 오는 26일부터 3일간 무주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연극 ‘우리 무주’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연극과 영화, TV 드라마 등에서 좋은 연기를 펼치고 있는 안석환 배우와 20여 명의 무주군민(무주중·고등학교 학생 및 지역 내 교사)이 함께 3개월여를 연습하며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 무주’는 미국 작가 손턴 와일더의 1938년 원작 ‘아워 타운’을 원작으로 한 것으로, 무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이야기로 각색해 눈길을 끈다.

지난해 무주산골영화제 참가를 계

기로 무주와 인연을 맺으며 이번 연극 무대 제안부터 연출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던 안석환 배우는 “이 작품은 인간미 뿜는 풍기는 따뜻한 무주 사람들의 이야기”라며 “60분 공연을 통해 무주를 더 많이 알고,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작은 시도가 되겠지만 무대 경험에 무주지역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더 꿈을 위한 씨앗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우리 무주’ 공연은 2월 26일과 27일 오후 7시, 28일 오후 2시와 7시 등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고원 스마트관광 이벤트 열어…관광객 유치 기대

진안군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진안고원 스마트관광 사이트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17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여간이다.

지난해 7월 오픈한 진안고원 스마트관광 사이트는 관외 거주자가 회원 가입을 하면 ‘진안고원 스마트관광 주민증’을 발급하고 진안군 내 관광지과 식당, 카페 등 가맹점 이용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여행지, 관광코스 및 행사·축제 등 여행정보 제공을 통해 진안군 관광을 유도하는 사이트다.

진안군은 이번 이벤트를 신규가입, 여행경비 지원, 참여업소 확대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고, 첫째 신규회원 가입 사은품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신규가입 회원 전원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둘째, 여행경비를 직접 지원하는 ‘알뜰관광 이벤트’도 진행한다. 진안고원 스마트관광 참여업소를 통해 소비한 영수증액을 증빙하면 금액별로 소비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다.

셋째는 진안고원 스마트관광 참여업소 확대를 위한 할인쿠폰 이벤트다. 가맹점 쿠폰 할인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서 지원해 가맹점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박춘선 진안군 안전환경국장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잠재적 관광객을 우리 군으로 불러들여 진안고원 스마트관광 사이트가 실질적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네트워크 활용 홍보 전략이 성공을 거둬 다양한 관광객이 유입돼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돌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익산시 어양동, '한소반 나눔 냉장고 지원사업' 추진

어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종욱, 서미덕)는 '한소반 나눔 냉장고 지원사업'을 추진해 취약계층 끼니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한소반 나눔 냉장고 지원사업'은 매주 2회 위기가정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기탁된 물품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입한 부식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000여 명의 이용자에게 꾸준한 도움을 제공한 바 있다.

한 지원 대상자는 "반찬을 비롯해 밀키트, 라면, 계란 등 다양한 품목을 지원받았다"며 "끼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서미덕 어양동장은 "나눔 냉장고 사업은 주민들의 나눔 참여를 통해 이웃이 이웃을 돕는 지역사회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며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주 2025 말씀대성회' 온·오프라인 대거 참석

지난 15일 덕진구 팔복동에 위치한 전주교회에서 '전주 2025 말씀대성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도마지파(지파장 최중일)에서 목회자, 신양인, 언론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열려 관심을 끌었다.

간중에 나선 목회자는 "신앙의 목적인 천국 가는 길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경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는지 알려주고 있으니 반드시 알아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신양인이라면 요한계시록에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오는지가 기록해 있으니, 말씀을 듣고 맞으면 믿고 맞지 않으면 돌아가도 된다"면서 말씀을 들어보고 확인해 보길 권했다. 특히 최중일 지파장은 요한계시록 전장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현장에 참석한 언론인과 목회자들에게 이날 들은 내용에 대해 가감 없이 그대로 사람들과 소속 성도들에게 알려주길 당부했다.

이번 대성회는 전주 및 전북 지역에서 열리는 신천지예수교회 말씀 세미나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최준호 기자

도약사회, 취약계층 지원 성금 1천4백만 기탁

농촌형 이동복지 서비스 물품지원·임양·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활용

전북자치도는 지난 1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가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천400만원을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백경한 도약사회장을 비롯해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장, 이선경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장, 장화정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장, 노진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는 지난 15일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천4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에서 농촌형 이동복지서비스 물품지원과 전부가정위탁지원센터 임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에 각 7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도약사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8천863만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해 왔다.

백경한 도약사회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힘이 되길 바라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

완주군청 박창우·이승아, 농촌 인력난 해소 표창

필리핀 공무원과 직접 소통... 외국인 근로자 농가 맞춤 배치하여 농작업 효율 극대화

완주군 삼례농협이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공로를 세운 완주군청 박창우, 이승아 주무관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지난 14일 박창우, 이승아 주무관은 삼례농협 2층에서 80여 명의 농업인들이 모인 가운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들은 필리핀(미나시, 팔로시) 공무원과 직접 소통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농가에 맞춤 배치해 농작업의 효율을 높였다.

특히, 삼례 지역은 300여 농가가 딸기를 재배하고 있어 겨울철 일손

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계절근로자(E-8)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90여 명이 일손을 지원하고 있다.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박창우, 이승아 주무관은 "농업인들이 주는 상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더하여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봉사하며 지역 농업 일손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삼례농협이 지난 14일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공로를 세운 박창우, 이승아 주무관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무주군 1억 상당 물품 기탁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지난 17일 무주군에 세탁 세제와 샴푸, 린스 등 생필품 1,047박스(1억원 상당)를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전해주며 기탁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김정안 대표는 "각박한 세상, 이웃과 나누며 사는 삶이 조금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에 동참하게 됐다"라며 "매일 쓰게 되는 생필품인 만큼 이웃들이 일

상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의 아동들을 후원하는 사회공익법인(서울 소재)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허가한 교육·사회복지 후원 기관이다.

지난해에도 무주군에 1억 5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부한 바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몽골 민속공연단, 남원서 자국의 혼 선보여

몽골 민속공연단(미라지 예술단)이 지난 14일 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전통 공연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과 몽골한인상공회의소에서 제안하여 성사된 것으로,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듯한 전통 창법인 흐미, 전통 악기 마두금 연주, 전

통 무용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몽골의 장엄한 역사, 광활한 초원, 유목 문화와 정신을 예술로 승화시켜 펼쳐는 1시간 동안의 향연은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공연을 관람한 한 어르신은 "평소 접해 보지 못해 생소한 몽골의 전통음악을 들어보아서 신기하고 즐거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장수군 장계면 지사협, '행복나눔 제빵 봉사활동' 실시

장수군 장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장호·임재성)는 지난 14일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희숙)에서 '행복나눔 제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협의체 위원들은 정성스럽게 빵을 만들었으며 완성된 빵을 장계면 내 밀알그룹홈과 더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를 통해 협의체 위원들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고 따뜻한 관심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임재성 위원장은 "참여해주신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정성을 담아 만든 빵을 어르신들께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나눌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조장호 면장은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히 살피고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며 "다양한 복지 활동을 통해 따뜻한 장계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정읍시, 장학금 기탁 붐몰 연초부터 훈훈한 기부 행렬

정읍시에 연초부터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며 따뜻한 나눔의 온기가 퍼지고 있다.

지난 14일 정읍회(회장 이성열)는 정읍시민 장학재단에 200만원을 기탁했다. 정읍회는 정읍의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모임이다.

같은 날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회장 송현)도 200만원을 기탁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정읍시농민단체연합회(회장 김태선) 또한 3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탰다.

수성동에 소재한 유리·창호 공사 업체(유)신화건설의 이인석 대표도 정읍 발전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위해 써달라며 200만원을 기탁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군 환경위생과 무주군 부남면, 상호교차 고향사랑기부

고창군 환경위생과와 무주군 부남면 직원 등이 지난 14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교차 기부에 동참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직원 10명이 뜻을 모아 부남면에 100만원을 기부했다. 무주군 부남면에서도 직원 10명이 고창군에 100만원을 기부했다. 우선 상호교차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하고 추후 상호 방문기로 했다.

강명관 부남면장은 "세계유산도시 고창군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게되어 기쁘다"면서 "부남면과 고창군 환경위생과가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속에서 다양한 방문이 이뤄지면 좋겠다" 말했다.

고미숙 환경위생과장도 "자연특별시 무주군 부남면 기부자들을 오는 4월 고창벚꽃축제와 청보리밭 축제에 초청을 제안하며, 원원하고 소통하는 지자체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탄소발자국 줄이는 방법 ?

탄소발자국이랄? 사람이 걸을때 땅에 발자국을 남기듯 사람의 활동이나, 상품의생산,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의 총량

01. 사용하지 않는 전등끄기

02. 물 절약 하기

03. 음식 남기지 않기

04. 분리배출 하기

05. 손수건 사용하기

06. 일회용품 줄이기

07. 플러그뽑기

〈一事一言〉



짱돌 들어 윤석열의 머리 내려친 예수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

윤석열과 그 일당이 헌법을 어기고 일으킨 군사 쿠데타로 여전히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은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이 술 마시듯 거짓말하는 태도.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하여 만행을 저지른 폭도들로 인한 충격과 분노 또한 감잡을 수 없다. 윤석열 내란 일당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일부 종교 세력은 또 어떤가. 특히 개신교 일부 극우파 세력이 윤석열 내란 세력을 지지하고 폭력 행위에 가담하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 슬픔을 던져주고 있다. 평화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째서 그 모양일까.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종교는 폭력을 사랑하는가. 종교는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을 지지하는가. 부처나 예수가 폭력을 사랑하던가. 부처나 예수가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을 지지한 적 있던가. 그런데, 종교와 폭력이 서로 연결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야기가 신약성서 누가복음 14, 12-24에 있다.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사람이 자기 집에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못 간다는 핑계를 대었다. 그러자 초대한 사람은 격노하여, 다른 사람들을 모셔오게 하였지만, 잔치에 아직 빈자리가 많이 남았다. 주인은 “길거리나 울타리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누가 14,23) 내 집을 채우도록 하여라” 일렀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가 14,23의 그리스어 νάγκασον εἰ καλεῖσθαι를 ‘강권하여 데려오라’ 뜻의 라틴어 compelle intrare로 잘못 번역했다. ‘말로 간절하게 권유하고 설득하라’ 번역이 가장 적절한데 말이다. ‘억지로다가 데려다가’ (공동번역 성서),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여’ (200주년 기념 성서) 표현도 잘 된 번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강권하여 데려오라’ 제목의 설교나 동영상은 오늘날 교회나 유튜브에서 보기는 어렵지 않다. 복음 선포를 위해서라면, 어떤 종류의 폭력을 동원해도 괜찮은가. 결코 그렇지 않다. 폭력을 이용한 복음 선포는 모조리 죄에 해당한다. 복음 선포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폭력을 동원해도 된다는 생각이 4세기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래 가톨릭교회에서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생각을 가톨릭교회는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폐기하였다. 예수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았다. 예수는 폭력의 가해자를 멀리하고 폭력의 희생자를 가까이했다. 예수는 폭력을 행사하는 불의한 세력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싸웠다. 그래서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누가 10,29-37)를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다. 예수는 말했다. “강도 같은 윤석열 내란 세력이 대한민국 시민들을 마구 두들겨 패고 반쯤 죽여놓고 갔습니다. 마침 어떤 목사

가 내란 세력에게 폭행 당해 쓰러져 죽게 된 시민들을 보고서도 치료하거나 위로하지 않은 채,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만 하다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길 가던 이름 없는 농민들과 노동자들과 2030 여성들이 고통받는 시민들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에게 폭행 당해 쓰러진 시민들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만 하자는 목사입니까? 이름 없는 수많은 민주 시민입니까?” 군인들을 동원하여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예수는 무어라 말할까. 간음하다 들킨 여인(요한복음 8,2-7) 단락을 또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때 시민들이 윤석열과 그 일당을 끌고 와서 예수 앞에 무릎 꿇리고 물었다. “예수 선생님, 이 악당들은 내란과 반란을 일으키다 붙잡혔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내란 수괴들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엄하게 처벌하라고 하였습니 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더니, 몸을 일으켜 말하였다. “윤석열의 내란 범죄보다 더 큰 죄는 대한민국에 없습니 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합쳐도,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는 턱없이 못 미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죄 있는 사람이나 죄 없는 사람이나 아무나, 마음 편히, 윤석열과 그 패거리들에게 돌을 던

지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는 짱돌을 들어, 윤석열 대갈통을 마구 후려쳤다. 그렇다면 이를 예수의 폭력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성경을 보내며, 용기나 사랑이니 나불거리며,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따르는 김진홍 목사와 오종진 신부에게 예수는 뭐라 말할까. “인간의 고통 앞에 종립은 없다. 독사 새끼들아, 악마 새끼들아,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너희들은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악마야 물러가라” 크게 야단치지 않을까. 윤석열 내란 세력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종교인들과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은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들은 민주 시민들에게 버림받고, 마침내 하늘에 떨어질 것이다.

본 칼럼은 시민연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전북을 만들자

전북자치도가 청년 유출을 막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성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청년층의 유출로 인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에서만 청년 인구 3만4천여명이 타지역으로 떠났으며, 그 결과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력 약화, 노동력 감소, 공동체 해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에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함성패키지 사업’은 ‘함께 성공’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청년의 구직·정착·자산 형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재직 청년을 위한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이 있다. 이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을 준비하고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이다. 지난해 시행된 ‘함성패키지 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이 정책의 효과는

명확히 드러났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참여자의 93.1%가 추천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경우 재직 유지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5.1%에 달했다. 또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은 도내 거주 유지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0.4%, 만족도는 96.7%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이는 청년들이 실제로 이러한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한다. 우선 지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소득 기준과 참여 인원 제한이 있어 일부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인 정책 지원도 중요하다. 단기적인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거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 내 기업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력하여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함성패키지 사업’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청년 정착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북이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지역, 나아가 청년들이 몰려드는 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문화재열전



탐동삼층석탑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종교, 불교, 석탑
-지정일- 1974년 9월 27일
-시대- 고려시대
-소재지-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66-1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윤관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봄길 / 정 호 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시인 약력 : 1950년 경남 하동 출생. 경희대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희'로,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침성대'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위령제'로 각각 당선됐다. 제3회 소설시문학상, 제12회 정치용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 시집 '별들은 따뜻하다'와 수필집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장편소설 '서울에는 바다가 없다' 등이 있다.

믿을 수 있는 뉴-스, 전북의 중심에서 전북타임스!

JBT

전북타임스신문

기사제보 282-9600 광고문의282-9601 신문구독 283-8800

익산시, 천만 관광도시 타깃 삼아 ‘정조준’

‘맛과 멋 그리고 쉽이 있는 익산 여행’을 위한 새로운 전략 철도 테마관광 등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통해 관광객 유치

익산시가 ‘1,000만 관광객 시대’를 향해 달려가는 출발선에 섰다. ‘맛과 멋, 쉽이 있는 여행’이 역주의 전략이다.

익산시는 역사부터 미식, 농촌, 어린이, 반려동물 등 다양한 주제로 알찬 관광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익산은 고대·근대역사 문화유산, 금강·만경강을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 비옥한 토지에서 자란 지역 농산물과 맛집, 호남 교통의 중심 익산역, 대형 축제와 가족 관광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지난해 관광객 500만 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데 이어 지난 7일 ‘1,000만 관광도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지를 다진 바 있다.

지금까지 구축해 온 관광산업 기반에 특색있는 테마형 관광상품을 더해 명실상부한 천만 관광도시로 우뚝 서겠다는 포부다.

익산은 호남 철도 교통의 중심지다. KTX와 SRT가 정차하는 익산역에서는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 3개 철도 노선이 분기한다. 특히 서울에서 고속 열차로 1시간 15분 이면 익산역에 도착하는 만큼 수도권 관광객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시는 올해도 이 같은 강점을 살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협업으로 계절마다 다른 테마의 철도 연계 관광을 추진한다. 익산역에 내린 열차 승객들은 시티투어를 활용해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평일에는 테마형 시티투어가, 주말엔 순환형 시티투어가 운영된다. 지역 에 산재한 종교 성지와 정원, 축제와 연계한 특별 여행 코스가 준비돼 있다. 보석 박물관 무료입장 주어진다는 혜택도 주어진다.

테마형 상품으

로는 4

대 종교 성지를 순례하는 ‘고백 시티투어’와 익산의 멋진 야경을 즐기는 ‘야경투어’가 있다. 올해는 익산의 대표 향토기업인 하림을 방문하는 상품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관광객 요구를 반영해 맞춤형 여행상품을 제공한다.

시티투어 요금은 인당 2,000원이며 익산시민을 비롯한 일반 대상자의 경우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익산 관광 명소 곳곳을 원하는 대로 둘러볼 수 있어 올해도 많은 관광객의 발이 돼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익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자랑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2015년 백제역사유적인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이에 발맞춰 시는 올해 백제역사유적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고도 한눈에(愛) 세계유산센터’를 시티투어 코스에 추가해 관광객에게 지역의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익산의 맛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 ‘미식산업계’를 신설했다. 미식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미식관광에도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황동 육회비빔밥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나 오랜 시간 인정받아 온 현지인 맛집 홍보에 나선다.

아울러 손맛으로 유명한 지역의 김치 명장과 함께 김장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여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요리 경연과 ‘고구마순’을 이용한 음식 축제, ‘치킨로드’, ‘청년 라면 가게’ 등 맛과 재미를 담은 관광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시는 올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앞으로 2028년 까지 4년 간 반려동물과 동반 여행이 가능한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국비 10억 원을 포함, 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반려동물 특화 콘텐츠 개발·운영(주얼리

팻파크 활성화, 다다익명 웰니스 팻 동반 여행길 조성, 동반여행 지원) ▲수용태세 확립(펫 모빌리티, 애니라운지 조성, 가이드북 제작, 반려친화시민 만들기 등) ▲확산 발전 전략(반려동물 익산 활성화 방안 연구, 다다익명 추진단 운영, 애니 칼리지 운영, 홍보마케팅과 협력 거버넌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최근 익산은 각종 열차 관광상품, 야간형 축제, 어린이 놀이공간 확대 등을 통해 누구나 취향에 따라 가볍게 놀러 올 수 있는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익산의 대표 축제와 연계한 관광열차 상품에 단체관광의 노하우를 녹여낸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익산 문화유산 야행 등 야간형 행사와 연결한 1박 2일 체류형 상품과 야간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왕궁보석테마관광지’에는 놀이체험시설인 볼글라이더가 새로 개장해 나무 사이로 왕궁저수지 위를 나는 듯한 재미를 선사한다.

서동생태공원에는 어린이 특화 테마공간인 ‘어린이 숲속 테마마을’을 조성하고, 신흥근린공원에는 도심 속 밤을 즐기는 ‘빛의 정원 조성사업’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단체관광객을 위한 활동·체류비 인센티브 지급과 미륵사지나 왕궁유적을 활용한 행사 유치 등 다양한 유인책도 마련됐다. 20명 이상 축제 방문 단체에는 버스 1대당 40만 원을 지원하며, 일반 단체관광객에게는 1인당 최대 2만 2,000원,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단체에는 1인당 최대 2만 5,000원을 지급한다.

배석희 경제관광과장은 “익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감동하고, 다시 오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다양한 전략을 잘 수립해 나가겠다”며 “천만 관광 시대를 이끌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